

군산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역대 최대규모 1조 7000억원, 코로나 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군산시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대 최대규모 1조 7천억원의 민선 8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8일 열리는 제 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1일 확정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20.7% 3,055억원 늘어난 1조7,80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6,200억, 특별회계 1,600억원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25억, 국도비보조금 753억, 순세계영여금 425억, 자체수입 362억, 기타 190억이

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우선으로 방점을 두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감염병 재확산 등 불확실한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확충하고, 용자금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세출편성으로는 민생안정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68억,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76억, △법안택시·버스기사 한시지원금 45억, △비료가격 및 면세유가격 안정지원 50억,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80억,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7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주요 현안 및 민선8기 공약사업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50억,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30억, △도시비밀길숲 조성 10억,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 12.5억,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4억,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 사업 2.5억 등을 반영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의 감염병 예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 통해 감염병 예방”

익산시, 집중호우 침수지역 친환경 긴급방역 실시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의 감염병 예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보건소는 침수지역에서는 웅덩이 등 고인물에 서식하는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해 말라리아 등 감염병이 발병할 위험이 있어 방역가동반을 편성해 18일까지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방역가동반을 2인 1조로 2개반을 구성해 침수 피해지역 및 상습해충 발생지역인 모현동 저류시설, 약촌오거리 저류시설, 신기교차로, 왕궁천 등을 방문해 모기 등 해충 방역연무소독, 유충구제)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로 추가 소독을 적극 진행해 자가방역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

는 시민들에게 방역장비(수동식분무기)대여 및 방역약품 총 6종(살충제, 유충구제, 비취벌레약, 개미약, 살서제, 진드기 기피제)을 신청자에 대해 무료로 배부한다.

보건소는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긴 장화를 착용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방역 행동요령을 강조했다.

또한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진운 익산시보건소장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침수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 강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코로나19 고위험·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강화

군산시 보건소, 감염 조기 차단

군산시 보건소는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감염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의 집중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군산시 고위험·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통계에 따르면 6월 53건, 7월 22건으로 확진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군산 코로나19 사망자 94명(8.16기준) 중 시설 내 사망자는 72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76.9%를 차지해 고위험·감염취약시설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고위험·감염취약시설의 방역관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방역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평상시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시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관리 조치, 추가 의심환자 모니터링 및 선제검사 안내, 방역물품 배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중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고위험·감염취약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마을해설사 ‘금마 이야기술사’ 양성 기초교육 실시

익산시가 금마고도지역의 도시재생과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금마 이야기술사를 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마 이야기술사 양성 교육 과정은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및 백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탐방프로그램 기획과 마을해설사를 육성해 방문객을 안내하고 지역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마을해설사 ‘금마 이야기술사’ 양성을 위해 금마고도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내년 심화교육과정을 실시해 마을해설사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최종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마지역 역사문화와 금

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해설사 지원 신청자 20명 선발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기초 소양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기초교육은 마을해설사의 이해, 마을 자원 유형 발굴, 익산(금마)지역 마을해설사 지도 개발, 금마고도지역을 탐방하는 현장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첫 기본 교육으로 지난 11일 금

마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서울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무소 서유림 강사로 초빙해 마을해설사, 도시재생 마을 투어란 주제로 진행했다.

서유림 강사는 마을해설사의 성공 사례자인 서울 창신동 송인지역의 도시재생현장센터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을 접목 시킨 마을 투어 강의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교육 참가생은 “익산 금마에 살면서 애항심과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지내왔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우리마을과 백제문화역사에 대해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금마 이야기술사 교육을 통해서 해설역량을 키워 자랑스럽게 익산 금마 이야기를 내·외부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22~25일 ‘2022 을지연습’ 실시

군산시는 오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 의실에서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25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 훈련을 위해 전 직원 대상 3일간(8.3~5) 사전 교육 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8.16) 개최 등 준비상황에 대해 사전 확인·점검하고 연습 기간 중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위기상황 가정하에 공무원 비상소집훈련(8.22)과 전시에 대비한 기구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 작태전환훈련 및 실제훈련을 통해 전시전환 절차를 연습한다.

특히 군산항 5부두에서 적 특자부대의 드론을 이용한 침투를 가정해 테러

진압 및 화재진압 훈련 등 중요 국가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실제 훈련이 실시된다.

또 병행 추진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8.24)은 최근 확산추세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청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시 대피훈련과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상황을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공적 훈련을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하반기 신규 아이돌보미 30여명 모집

익산시가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아이돌보미 30여명을 모집한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여성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다.

응시자들은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 인적성 검사를 거쳐 아이돌보미로 선발된다. 선발된 인원은 전라북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총 10일, 평일)의 이론수업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으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2년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 설문조사

군산시는 2022년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9개 분야 중 7개 분야 12명(문화예술체육부장 1명, 애환봉사장 5명, 산업장 2명, 노동장 1명, 효열장 1명, 시민안전장 1명, 교육장 1명)의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 접수를 마쳤으며, 추후 심의위원회 심사 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민참여서비스-설문조사에 첨부된 수상후보자 개인별 공적요약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박종길 행정지원과장은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2년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